

# 한국의 대중 투자 둔화 배경 및 시사점

**최지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jwchoi@kiep.go.kr, 044-414-1290)

**양평섭**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선임연구위원 (psyang@kiep.go.kr, 044-414-1121)



## 차 례

1. 최근 한국의 대중국 투자 둔화
2. 한국 제조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전환
3. 평가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2023년도 한국의 대중국 신규 투자는 반도체 분야 투자 급감으로 전년대비 78.1% 감소한 18억 6,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함.
  - 2018~22년 대중국 투자 중 반도체 투자 비중이 39.8%로 대중국 투자 확대를 주도했으나, 2023년에는 전년(56억 7,100만 달러)대비 99.8% 급감한 1,100만 달러에 그침.
- ▶ 최근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둔화는 △ 반도체 투자효과 소멸, △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여건 악화에 따른 해외투자 지역 전환, △ 전반적인 해외투자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함.
  - 미·중 갈등으로 대중 투자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9~22년 반도체 분야의 사전 대비적 투자가 증가했으나, 미국의 장비 수출 통제, IRA 등 첨단 분야의 대중 투자 규제가 한국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도체 분야의 대중국 투자가 일단락됨.
  - 중국 내 인건비 상승, 외국인투자 기업 혜택 축소 등 외국인의 투자여건 악화로 해외 진출 지역으로서 중국의 이점이 사라지고 있어 우리 기업은 중국 이외의 지역과 국가로 투자 지역을 전환하고 있음.
  - 한국의 해외투자는 2014~22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23년에 급감하면서 대중국 투자도 동반 위축됨.
- ▶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한국 제조기업의 해외 가공·생산 기지였으나, 2013년 이후 한국의 제조업 해외투자 거점은 ASEAN, 미국, 중남미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음.
  - 한국의 제조업 분야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12년 40.9%였으나, 2013~17년 33.7%, 2018~23년 26.7%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 2013년 이후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ASEAN(섬유, 통신장비, 의류, AV 기기), 미국(전자기기, 배터리, 반도체), 중남미(자동차, 가전) 등으로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임.
- ▶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감소 및 재중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외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대중국 투자 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제3국 이전 지원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대중 투자 둔화가 재중 한국기업의 대한국 수입 위축으로 이어지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소재와 부품 기업의 탈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첨단 분야 및 공급망 핵심 업종기업의 U-turn 및 P-turn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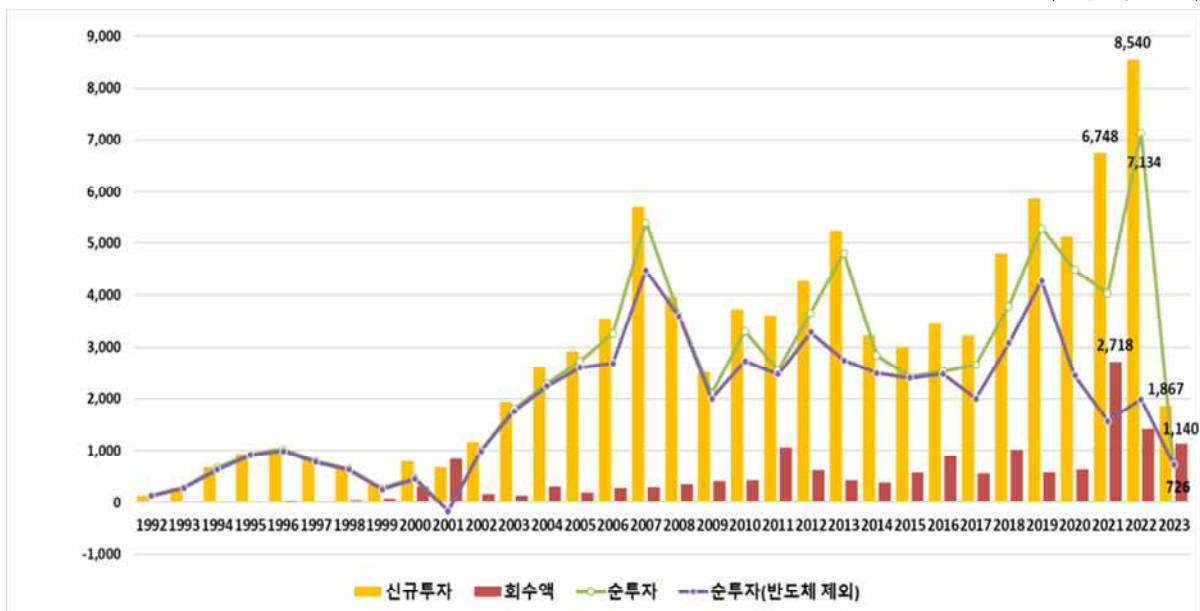
# 1. 최근 한국의 대중국 투자 둔화

## 가. 대중국 투자 현황

- 한국의 대중국 투자 증가를 주도해온 반도체 분야 투자를 제외하면 최근 한국의 대중국 신규 투자는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반도체 분야 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대중국 투자가 급감함.
- 2018~22년의 5년간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중국 투자가 확대되었으나,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철수도 크게 증가함.
  - 2018~22년 대중국 신규 투자액 311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 분야 투자<sup>1)</sup>는 124억 달러로, 해당 기간 전체 대중국 투자의 39.8%를 차지하며 대중국 투자 확대를 주도
  - 재중 한국기업의 사업 매각 또는 중단을 통한 자본 철수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 회수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억 1,800만 달러를 기록
- 반도체 분야의 투자가 일단락된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신규 투자액은 18억 6,7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8.1% 감소함.
  - 2023년 반도체 분야의 투자는 1,100만 달러(2022년 56억 7,100만 달러)로 급감하였고, 투자회수액(11억 4,000만 달러)을 반영한 순투자(신규 투자-회수액) 규모는 7억 2,600만 달러(2022년 71억 3,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89.8% 감소

그림 1.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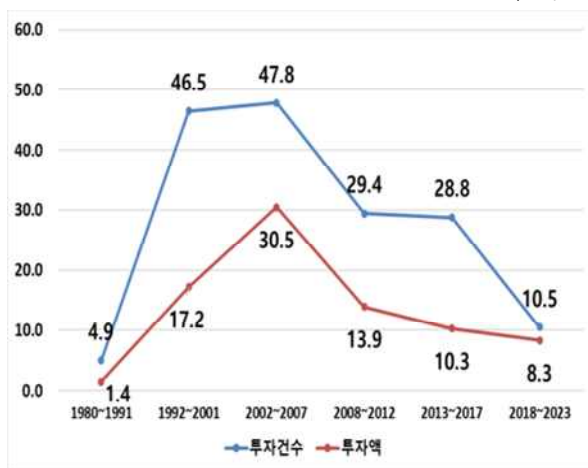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DB.

1) 메모리 및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소자(발광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포함함.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로, 2023년에는 7위국으로 전락함.
  - 한국의 해외투자 중 중국의 비중은 2002~07년 30.5%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23년에는 8.3%로 낮아짐.
  - 2013년 중국은 한국의 1위 투자 대상국이 된 후 2022년까지 2~3위를 유지해왔으나, 2023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 비중이 2.9%로 급감하면서 미국(1위), 캐나다(4위), 베트남(5위), 인도네시아(6위)보다 낮은 7위 투자 대상국이 됨.

그림 2. 한국의 해외투자 중 중국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DB.

표 1. 2018~23년 한국의 해외투자 국가 및 지역

(단위: 백만 달러, %)

국가/지역	2018~23		2023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대세계	397,262	100.0	63,383	100.0
미국	127,249	32.0	27,716	43.7
EU	53,023	13.3	8,364	13.2
ASEAN	52,242	13.2	7,090	11.2
케이맨군도	48,057	12.1	6,166	9.7
룩셈부르크	23,609	5.9	4,952	7.8
캐나다	13,575	3.4	3,602	5.7
베트남	18,923	4.8	2,637	4.2
인도네시아	8,398	2.1	2,092	3.3
<b>중국</b>	<b>32,953</b>	<b>8.3</b>	<b>1,867</b>	<b>2.9</b>
싱가포르	15,820	4.0	1,239	2.0
브라질	2,828	0.7	1,178	1.9

주: EU와 ASEAN은 규모 비교를 위해 포함한 것으로, 국가 순위에서는 제외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DB.

## 나. 대중국 투자 감소 3대 원인

-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둔화는 △ 반도체 투자 급감, △ 중국의 투자여건 악화에 따른 해외투자 지역 전환, △ 전반적인 해외투자 증감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함.
  - 2023년 대중국 투자 감소 중에서 반도체 분야의 투자 감소는 -56억 6,100만 달러(전체 대중국 투자 감소의 85%), 이외에 해외투자 지역 전환에 따른 감소분은 -4억 9,500억 달러(동 7.5% 차지), 한국의 대세계 해외투자 감소로 인한 감소분은 -5억 1,700억 달러(동 7.7% 차지)로 추정됨.
  - 투자 지역 전환에 따른 대중국 투자 감소는 2006~09년(1차), 2013~17년(2차), 2019~23년(3차) 등 3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남(표 2 및 그림 3 참고).

표 2. 한국의 대세계 및 대중국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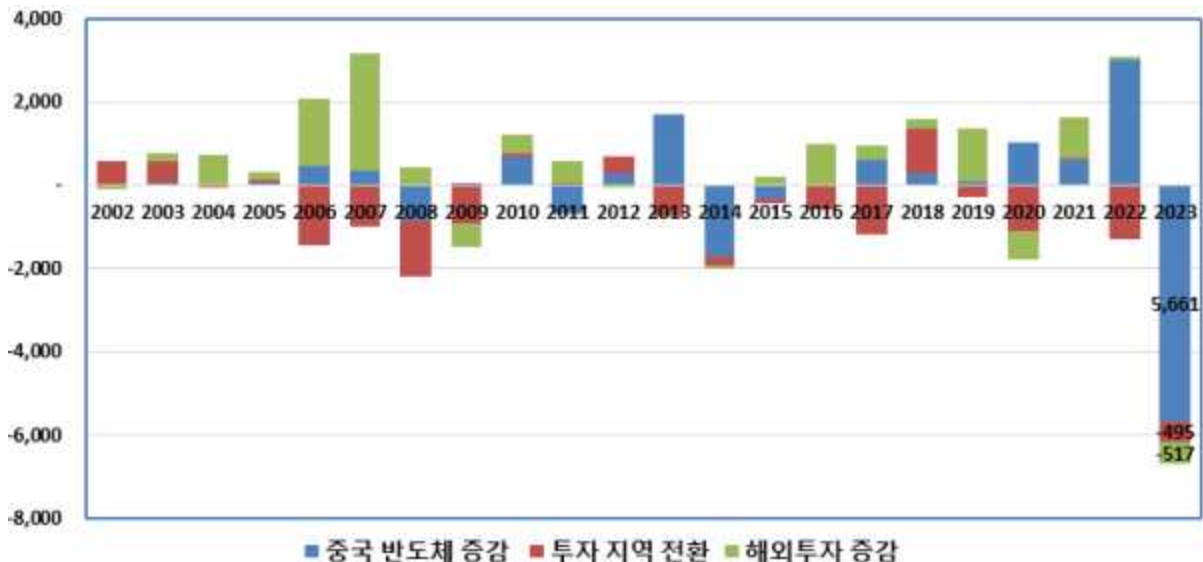
연도	대세계 투자		대중국 투자		중국 비중	반도체		반도체 증감효과	투자 지역 전환효과	해외투자 증감효과
	투자액	증감률	투자액	증감률		전 세계	중국			
2002	4,164	-31.6	1,164	69.5	28.0	27	14	6	582	-110
2003	4,936	18.5	1,945	67.1	39.4	57	52	38	537	206
2004	7,019	42.2	2,614	34.4	37.2	258	53	1	-63	730
2005	7,428	5.8	2,918	11.6	39.3	171	118	65	52	188
2006	12,022	61.8	3,549	21.6	29.5	601	580	462	-1,438	1,607
2007	23,126	92.4	5,710	60.9	24.7	957	931	352	-984	2,794
2008	24,336	5.2	3,970	-30.5	16.3	156	87	-844	-1,329	434
2009	20,992	-13.7	2,527	-36.3	12.0	160	109	22	-927	-538
2010	25,659	22.2	3,732	47.7	14.5	890	807	699	49	457
2011	29,661	15.6	3,618	-3.1	12.2	282	103	-704	46	544
2012	29,694	0.1	4,272	18.1	14.4	703	376	273	427	-47
2013	31,213	5.1	5,233	22.5	16.8	2,403	2,082	1,706	-720	-24
2014	28,737	-7.9	3,227	-38.3	11.2	561	365	-1,717	-220	-69
2015	30,427	5.9	3,004	-6.9	9.9	158	56	-309	-126	213
2016	40,747	33.9	3,443	14.6	8.4	141	57	1	-570	1,007
2017	45,434	11.5	3,225	-6.3	7.1	869	673	616	-1,164	330
2018	51,814	14.0	4,805	49.0	9.3	3,731	947	274	1,104	201
2019	65,492	26.4	5,865	22.1	9.0	1,418	1,024	77	-300	1,283
2020	58,181	-11.2	5,128	-12.6	8.8	3,089	2,055	1,030	-1,089	-679
2021	76,883	32.1	6,748	31.6	8.8	4,419	2,671	616	34	969
2022	81,509	6.0	8,540	26.6	10.5	7,438	5,672	3001	-1,299	90
2023	63,383	-22.2	1,867	-78.1	2.9	2,669	11	-5,661	-495	-517

주: 1) 반도체 투자 증감효과는 반도체 투자액의 전년대비 증감액, 2) 투자 지역 전환효과는 당해연도 해외투자 × 전년도 대중국 투자 비중(대중국 투자액/해외투자 총액)과 당해연도 실제 대중국 투자액과의 차이, 3) 해외투자 증감은 대세계 당해연도 투자 증감분 × 전년도 대중국 투자 비중으로 산출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한국의 대중국 투자 변동의 원인 분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반도체 투자 감소] 2023년 대중국 투자가 급감한 것은 최근 한국의 대중 투자를 주도해온 반도체 관련 투자가 일단락되었기 때문임.
  - 2019~22년에는 미국의 대중국 투자 규제가 반도체 분야에서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사전 대비 차원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가 크게 증가했음.
    - 해당 기간 삼성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장비 업그레이드 및 시설 확장 투자, SK하이닉스의 다렌 인텔 낸드 플래시 공장 인수 투자 및 충칭 후공정 관련 투자 등이 증가함.
  - 그러나 미·중 갈등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첨단 분야의 대중국 투자가 제한되면서 반도체, 배터리 등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제약을 받음.
    - 2022년 미국 상무부는 대중국 반도체 관련 장비 수출통제 방안을 발표하였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국 사업장에는 규제 적용을 유예했으나 그 기간이 일시적이어서 관련 기업의 중국사업 추진에 있어 불확실성이 증대됨.<sup>2)</sup>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및 기술 수출 규제에 대비 사전적 투자가 일단락된 2023년에는 반도체 분야 투자액이 1,100만 달러로 전년(56.7억 달러) 대비 99.8% 감소함.
  
- [투자 지역 전환]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여건 악화로 해외 진출 지역으로서 중국의 이점이 소멸되어 가면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중국 이외의 지역과 국가로 투자 지역을 전환하고 있음.
  - 2023년 재증 한국기업은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 중국시장 내 판매 부진, △ 중국업체들의 경쟁력 제고로 인한 경쟁 심화, △ 중국 내 생산원가 상승, △ 인력난 등을 제시함.<sup>3)</sup>
    - 현대자동차 중국법인인 베이징현대(北京现代)의 매출은 2016년 20조 1,287억 원에서 2023년 4조 9,003억 원으로 75.7% 감소함.<sup>4)</sup>
  -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반간첩법」 등 중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및 단속 강화,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에 대한 불신감 등의 이슈가 부각되며 재증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됨.
  - 한국의 대세계 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9.4%에 달했으나,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투자 지역을 전환하면서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표 2 참고)
    - 투자 지역 전환에 따른 대중국 투자 감소 규모는 2006~09년에 46억 7,900만 달러, 2013~17년에 27억 9,900만 달러, 2019~23년에는 31억 4,900만 달러로 추정됨.
  
- [대세계 해외투자 감소] 2014년 이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한국의 대세계 해외투자가 2023년에 급감하면서 대중국 투자도 동반 위축되고 있음.

2) 특히 SK하이닉스가 2020년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렌 낸드 플래시 생산공장은 향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실행하며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023년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의 다렌 반도체 공장 생산 능력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함. 더구루(2023. 5. 4.), 「SK하이닉스 다렌 공장 매각설 일축... "예정대로 완공"」; 지디넷코리아(2023. 8. 24.), 「美 삼성-SK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유예 연장」(2023. 8. 24.); Bloomberg(2024. 1. 23.), 「The \$9 Billion Chip Plant Stuck in Limbo of US-China Rivalry.」

3) 김동수, 김재덕(2023), 「중국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2023년)」, p. 53, 전망·동향자료 2023-07, 산업연구원.

4) 조선일보(2023. 7. 6.), 「대기업의 중국 생산 법인, 6년새 46곳 철수」.

- 한국의 대세계 해외투자가 2014년 287억 달러에서 2022년 815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대중국 투자도 동반 증가하여 이 기간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대중국 투자 증가분은 33억 4,600만 달러로 추산됨.
- 한편 2023년 한국의 대세계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22.2% 감소한 634억 달러였으며, 해외투자 감소에 따른 대중국 투자 감소 규모는 5억 1,700만 달러로 추산됨.

## 다. 대중국 투자회수 업종 및 주요 사례

■ 반도체, 자동차 및 부품, 철강 등 대부분 업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투자회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2018~23년에는 액정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통신기기 등 한국 대기업의 주력 업종에서 투자회수가 이루어짐.
  - 동기간 대중국 투자회수액 대비 제조업의 투자회수 비중은 84.6%이고, 반도체 분야의 투자회수 비중은 12.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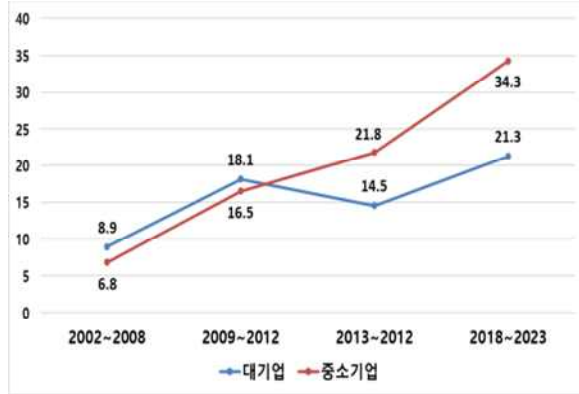
표 3. 대중국 투자회수 분포(2018~23)

순위	업종	비중(%)	순위	업종	비중(%)
1	액정표시장치	15.1	8	전기장비	5.8
2	반도체	12.8	9	기타 전자부품	5.7
3	기타 제조	11.9	10	통신 및 방송 장비	4.6
4	부동산 개발 및 임대를 제외한 서비스업	10.8	11	부동산 개발 및 임대	4.4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6	12	선박 및 보트	3.8
6	자동차 및 트레일러	5.9	1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3.6
7	화학물질	5.9	14	철강	3.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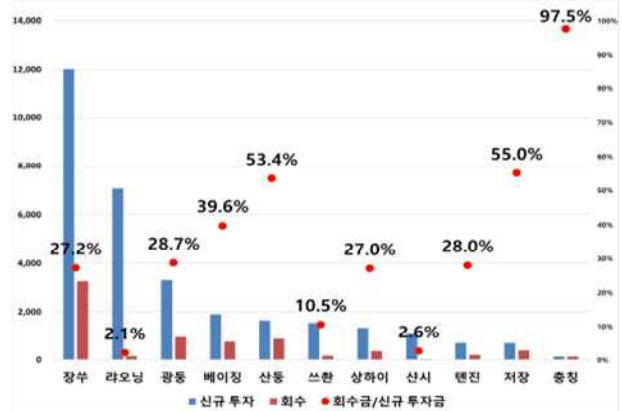
- 투자회수 주체는 대기업의 비중이 높고, 지역에서는 한국과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가공조립 기지 역할을 수행해온 연해 지역으로부터의 회수 규모가 크지만 투자액 대비 회수액 비중은 낮음.
  - 자동차, 배터리, 가전, 석유화학, 부동산 등 분야에서 대기업의 투자회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23년 누계 투자회수액 74억 9,500만 달러 중 대기업 비중이 83.3%임.
  - 같은 기간 장쑤(江苏), 광둥(广东), 베이징(北京)은 투자 규모와 투자금 회수 규모가 모두 크지만 투자액 대비 회수액 비중은 각각 27.2%, 28.7%, 39.6%에 불과한 반면, 충칭(重庆), 저장(浙江), 산둥(山东)의 투자액 대비 회수액 비중은 97.5%, 55.5%, 53.4%에 달함(그림 5 참고).

그림 4. 기업 규모별 신규 투자금 대비 회수금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DB.

그림 5. 한국의 주요 투자 지역(2018~23)  
(단위: 백만 달러, %)



■ 2018년 이후 한·중 관계 악화 및 중국의 경쟁력 제고로 인하여 유통·가전 및 LCD 분야가 철수하기 시작했고, 이후 중국 내 사업 구조조정 차원의 부동산 매각(2020~21), 중국 내 매출 급감에 따른 자동차 및 철강 사업 매각 및 사업 전환, 석유화학 산업 철수(2023~24)로 이어짐.

- 사드 사태 이후 한·중 관계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애국 소비 현상 등이 이어져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화장품 등 소비재 업체가 중국 사업 일부를 철수함.<sup>5)</sup>
- 삼성전자는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스마트폰, LCD, PC 등의 공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짐.<sup>6)</sup>
  - 2018년부터 중국 내 모바일 기기 생산공장을 베트남·인도로 이전했고, BOE 등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 2021년 LCD 사업도 철수함.
- 중국 내 한국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현대자동차 중국법인인 베이징현대는 생산 거점을 기존 5곳에서 2곳으로 줄임.
  - 베이징현대의 총칭 공장 매각으로 HL Mando 총칭 법인, 유라코퍼레이션, 코오롱글로벌, 서연이화 등 부품 업체도 현지에서 철수함.
- 중국의 저가 공세, 석유화학 자급률 제고정책 및 환경규제 강화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이 중국사업을 축소하고 있음.<sup>7)</sup>

5) 서울이코노미뉴스(2022. 8. 22.), 「중국 젊은층 '귀차오'(애국 소비) 열풍, 유통 화장품 패션업체 대륙 철수」.

6) 뉴스웨이(2020. 8. 3.), 「삼성전자, 中 생산기지 메리트 없다·스마트폰·디스플레이·PC 줄줄이 정리」.

7) SR타임즈(2024. 3. 18.), 「석유화학사, 환경 규제 강화에 탈중국 '러시」.



표 4. 재중 한국기업의 중국사업 철수 사례

업종	연도	기업	내용
유통	2017	CJ오쇼핑	홈쇼핑 사업 철수
	2018~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청두(成都)점 매각 예정으로 백화점·마트 완전 철수(2024년 기준)
	2021	아모레퍼시픽	에뛰드하우스 철수
전자제품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2018	삼성전자	톈진(天津) 스마트폰 공장 철수
		삼성전자	선전(深圳) 통신장비 공장 철수
	2019	삼성전자	광둥 후이저우(惠州) 스마트폰 공장 가동 중단
	2019	LG전자	저장 미국 수출용 냉장고 생산시설 폐쇄
	2020	삼성전자	쑤저우(苏州) 노트북 PC 공장 가동 중단
	2020	삼성전자	톈진 TV 공장 가동 중단
	2020	LG전자	톈진, 쿤산(昆山) 등 생산법인과 오프라인 유통매장[선양(沈阳)] 청산
	2021	LG이노텍	후이저우 법인 매각(조명용 LED, 디스플레이용 BLU)
	2021	삼성디스플레이	쑤저우 LCD 공장 매각
	2023	LG이노텍	옌타이(烟台) 카메라 모듈 공장 철수
배터리	2023	위닉스	중국법인 일부 철수
	2021	삼성SDI	배터리팩 공장[우시(无锡), 창춘(长春)] 철수
	2023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현지법인 청산
석유화학	2021	SK케미칼	칭다오(靑島) 자회사 매각
		LG화학	편광판 소재 사업 매각
	2023	롯데케미칼	합작기업인 롯데 산장(三江), 롯데 자싱(嘉兴) 지분 매각
		GS칼텍스	중국 윤활유 생산·판매 법인 지분 매각
2024	금호석유화학	현지 기업과 설립한 합작공장 지분 매각	
철강	2022	포스코	광둥 생산 법인 지분 50% 매각
		동국제강	중국법인 DKSC 지분 90% 매각
	2023	현대제철	베이징, 충칭 법인 매각
자동차 및 부품	2019	기아자동차	옌청(盐城) 1공장을 위에다그룹(悦达集团)에 장기 임대
	2021	현대자동차	베이징 1공장 매각
	2023	현대자동차	충칭 공장 매각(HL Mando 충칭 법인, 유라코퍼레이션, 코오롱글로텍, 서연이화 등 부품 업체도 현지 철수)
		현대 글로벌비스	현지 유통법인 지분 모두 매각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매출이 적은 중국법인의 지분 매각 및 청산
		코오롱인더스트리	타이어 코드 공장 철수 → 베트남 이전
		삼기	차량용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회사로, 중국법인 철수
	2024(예정)	DH오토웨어	중국 칭다오 법인 지분 90% 청산 → 멕시코 진출 예정
2024(예정)	현대자동차	창저우(常州) 공장, 베이징 엔진공장 매각 예정	
	반도체	SK하이닉스	상하이(上海) 판매법인 청산 → 장쑤 우시로 거점 통합
화장품	2024(예정)	SFA	반도체 중국법인 매각
	2021	LG생활건강	항저우(杭州) 공장 매각
기타	2023	엔에프씨(NFC)	화장품 소재·완제품 제조 회사로, 중국법인 지분 매각
	2019	CJ푸드빌	빔스 중국 매장 철수
		LG	베이징 트윈타워 매각
	2021	삼성중공업	닝보(宁波) 선박 블록 현지법인 폐쇄
		SK	베이징 SK타워 매각
		SK	중국 지주사인 SK차이나의 중국 SK렌터카 지분 매각
	2022	롯데	중국 진출 롯데 계열사를 지원하는 헤드쿼터 법인 청산
	2023	LG에너지솔루션	현지합작사 지분 모두 처분
		한화	HAM홀딩스 중국 상해법인 매각
		CJ제일제당	중국 자회사(지상취, 吉香居) 매각
한샘		가구·인테리어 회사로, 중국 리모델링 사업 철수	
롯데웰푸드		중국법인 매각	

자료: 조선비즈(2021. 3. 12.), 「LG전자, 中 법인 군살 빼기…톈진·쿤산 등 생산법인 청산」; 매일경제(2021. 9. 7.), 「“中사업 불날은 갔다…철수 타이밍만 노린다” 잇단 철수 왜?」; 동아일보(2023. 8. 18.), 「“기업 중서 철수 시작”… 현대제철-英ARM 등 잇달아 짐 싸」; 조선비즈(2024. 3. 12.), 「SK이노, 중국 배터리 법인 블루 드래곤 에너지 청산」; 동아일보(2023. 8. 28.), 「중국車, 국내 물려오는데… 한국기업은 ‘脫중국」; 조선비즈(2024. 3. 14.), 「“중국서 사업 못하겠네”… 발 빼는 韓 대기업들」; 조선비즈(2024. 3. 17.), 「중국 사업 재정비 나선 SK하이닉스…상하이 판매법인 청산, 우시로 거점 통합」.

## 2. 한국 제조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전환

### 가.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위상 축소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중국은 한국 제조기업의 중요 글로벌 가공 및 생산 기지였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첨단부품 및 자동차 산업의 주요 해외 생산기지 및 판매 시장으로 자리 잡았음.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내수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의 해외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됨.
  - 한국의 제조업 분야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2001년 25.8%에서 2002~12년 40.9%로 대폭 확대되었음.
  - 1992~2001년에는 섬유, 의류, 전자부품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해외 가공무역 기지로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02~12년에는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산업용 원자재 산업과 가전, 자동차, 휴대전화 등 핵심 소비재 산업의 주요 해외 생산기지로 자리 잡았음.<sup>8)</sup>
- 우리 기업은 2010년대 중국의 산업 고도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국 내 조달이 어려운 액정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부품과 자동차 산업 분야에 진출함.
  - 2023년 말(누계 기준) 4대 업종(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액정표시장치)의 대세계 투자에서 중국의 비중은 42.5%이며, 그중 반도체는 56.8%, 배터리는 22.2%, 자동차 30.4%, 액정표시장치는 73.9%를 차지함(표 5 참고).
  - 2018~23년 대중국 투자의 37.6%가 반도체 산업에 이루어졌으며(123억 8,000만 달러), 이는 반도체 분야 대세계 투자의 54.4%에 해당함(표 5 참고).

표 5. 제조업과 4대 업종의 대세계 투자 대비 대중국 투자 비중

(단위: %)

구분	1980~2023	2002~07	2008~12	2013~17	2018~23
제조업	31.6	53.1	32.5	33.6	26.7
4대 업종	42.5	52.9	45.9	55.8	39.2
- 반도체	56.8	84.4	67.7	78.3	54.4
- 배터리	22.2	56.5	45.0	36.2	21.0
- 자동차	30.4	37.9	33.5	36.6	25.7
- 액정표시장치	73.9	63.6	62.7	79.2	77.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DB.

8) 최원석, 양평섭, 박진희, 김주혜, 최지원, 자오썩왕(焦兴旺)(2020),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연구』, 연구보고서 20-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인건비 상승,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중국 로컬 기업과의 경쟁 심화 등 중국의 외국인 투자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 등 지경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점차 한국 제조기업의 생산거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내 임금 상승, 중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한국기업의 비교우위가 약해지면서 의류, 가구, 전자, 전자부품(반도체 제외) 기업이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전환함(제1차 전환, 2008~12년).
    - 중국의 인건비 상승, 환경 규제 강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 등으로 중국의 외국인 투자여건이 점차 악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이 둔화되면서 중국을 가공기지로 삼았던 노동집약적 업종과 비환경친화적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이전함.<sup>9)</sup>
    - 2008~12년에는 신발, 피혁, 의류 업종 등에서 비정상적 철수 현상(아반도주)이 나타났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비금속광물 등 중국의 광물 분야 투자규제 조치에 따른 비철금속광물 분야의 대중국 투자사업 철수가 이루어짐.
    - 2008~12년 한국의 해외투자 대상 국가로서 중국의 위상은 빠르게 약화되어 한국 대세계 투자금액 중 중국 비중이 13.9%로 급락함.
  - 2016년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국기업의 우회 수출 또는 글로벌 공급기지로서 중국의 이점이 약해지면서 중국 이외에 미국, ASEAN, 중남미 등으로 제조기지를 전환하고 있음(제2차 전환, 2018년~현재).
    -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 악화, 글로벌 다국적 유통업체 및 중국 로컬 업체와의 경쟁 심화, 중국 소비의 온라인화에 따른 유통업체의 매출 및 수익 악화로 유통업체의 중국사업 철수가 이루어짐(롯데, 이마트, CJ 등, 2017년).
    - 미·중 갈등, 중국의 내수시장 부진 및 중국 내 경쟁 심화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휴대전화와 같은 대기업 주력 업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해외투자 지역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미·중 마찰로 첨단산업 분야의 중국 투자 리스크가 증대하여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중 기술패권 경쟁 핵심업종에 대한 중국 내 투자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음.

표 6. 대중국 투자와 구조조정 단계

구분		1단계 (1992~2001)	2단계 (2002~12)	3단계 (2013~23)
투 자	특징	중소기업 가공무역형 투자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진출	대기업 중심
	대상	저임금 활용, 자원 개발	중국 내수(소비재)	중국 내수(중간재)
	업종	가전, 섬유, 신발, 피혁, 전자부품, 비철금속	컴퓨터, 자동차, 휴대폰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LCD

9) 중국은 대외개방 초기 다양한 우대정책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으나, 환경오염, 기술중속 등 유입된 외자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외국인투자 규정을 기존 '다다익선 전략'에서 자국 산업 발전과 외국인투자 유치 업종을 연계하는 '선별적 유치전략'으로 전환했음. 양평섭, 나수열, 박민숙, 이한나, 조고운, 오윤미(2018),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중국종합연구 18-67-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해외투자 조정기 (외환위기~)	제1차 구조조정 (2008~12)	제2차 구조조정 (미·중 마찰과 코로나19, 2018~현재)
구조 조정	배경	한국의 해외투자 여 력 위축	인건비 상승, 환경규제 강화, 외 자기업 혜택 축소, 선별적 외국인 투자 정책	한·중 관계 악화, 미·중 마찰, 코로나19 팬데믹, 중국기업의 경쟁력 향상
	회수액	14억 달러	43억 달러	103억 달러
	업종	[제조업] 전자부품 [서비스업] 소매업	[제조업] 식품, 의류, 고무, 전자 부품, 신발, 철강, 조선, 전자부품 [서비스업] 숙박업, 금융 보험업	[제조업] 고무제품, 철강, LCD 및 전자부품, 합성수지, 플라스 틱 제품, 반도체 소자, 무선통신 기기, 자동차 및 부품 [서비스업] 도소매업, 지주회사
	철수	대중국 투자 조정	독자 진출 중소기업의 가공무역형 투자 → 동반진출형, 내수지향형 투자 전환	시장지향형 대기업 및 동반진출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 매각 후 사업 전환 → 신사업 투자 모색
	철수 주체	-	가공무역형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생산기지 이전	-	U-turn : 동남아(전자부품, 섬유 및 의류), 중남미(철강, 비철금속)	U-turn, 동남아(P-turn) 이전 미국(첨단 제조업)

자료: 양평섭, 나수업, 박민숙, 이한나, 조고운, 오윤미(2018),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중국종합연구 18-67-08,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DB 등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대세계 제조업 해외투자에서 중국의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08~17년은 중국의 대체 생산 지역으로 ASEAN의 비중이 증가했고, 2018년 이후에는 ASEAN의 비중은 줄고 미국의 비중이 크게 늘어남.

- 한국의 제조업 해외투자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3~17년 33.6%였으나, 2018~23년에는 26.7%로 대폭 축소됨.
- 기존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산업에서 중국의 대체 생산 지역으로 선호되었던 ASEAN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다가 2018년 이후 하락세를 보임.
- 반면 2018년 미·중 갈등이 촉발된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대미국 투자 비중이 2018~23년 26.9%(2013~17년 11.3%)로 크게 상승함.
  - 특히 2023년 한국의 제조업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급락한 반면 미국의 비중은 51.4%로 급등하였으며, 미국으로의 제조업 분야 투자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표 7. 한국의 제조업 해외투자 지역 분포

기간	대세계 투자액 (억 달러)	비중(%)						
		중국	ASEAN	베트남	미국	EU	중남미	기타
2002~07	272.4	53.1	9.4	5.3	11.0	10.4	3.2	12.9
2008~12	392.5	32.5	21.6	6.6	11.8	7.5	7.1	19.6
2013~17	431.0	33.6	24.6	14.4	11.3	6.5	9.6	14.4
2018~23	1,117.1	26.7	18.1	10.4	26.9	12.2	6.7	9.4
2023	202.5	<b>6.8</b>	17.6	9.9	<b>51.4</b>	6.2	9.3	8.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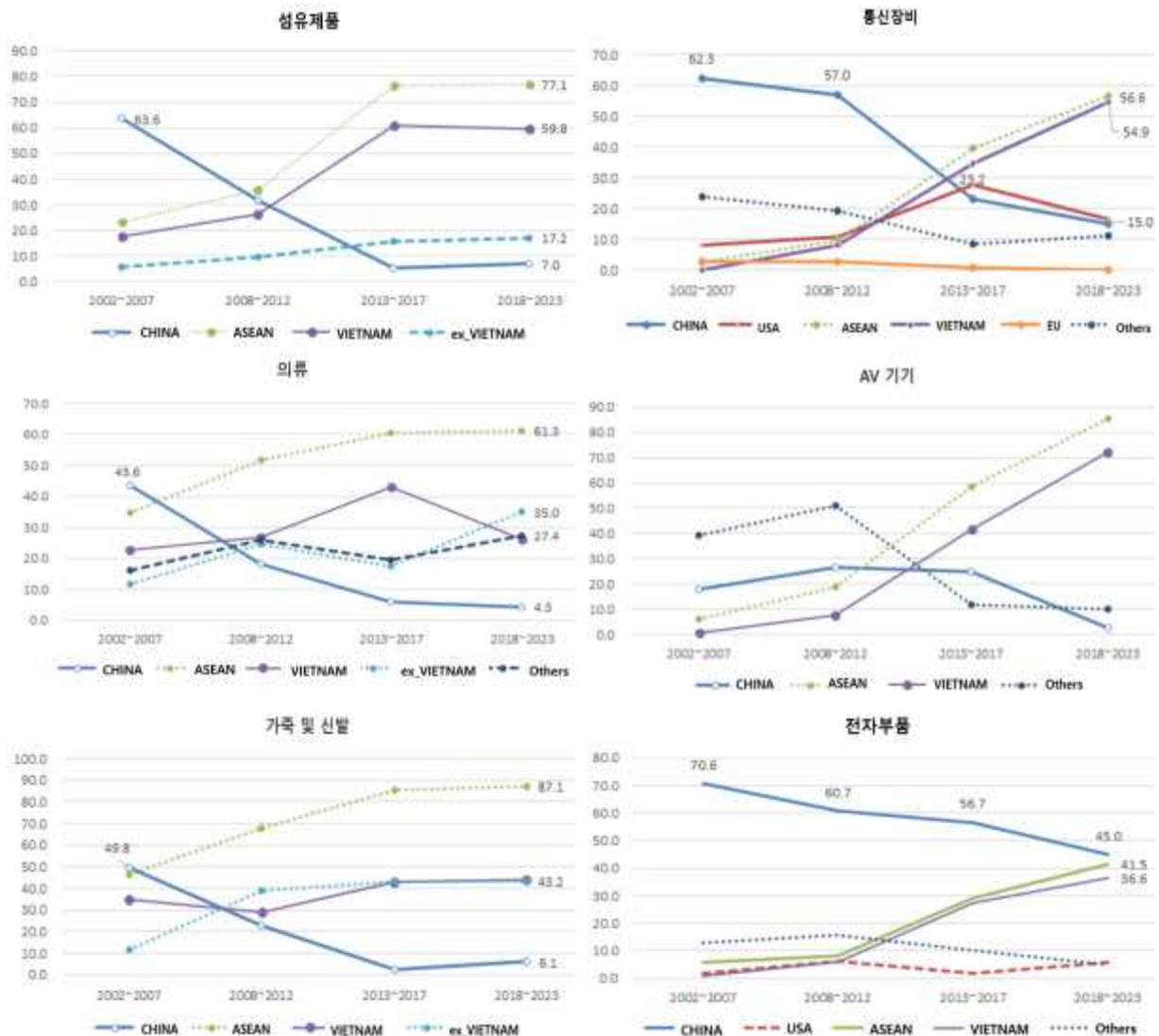
## 나. 제조업 해외투자 지역 전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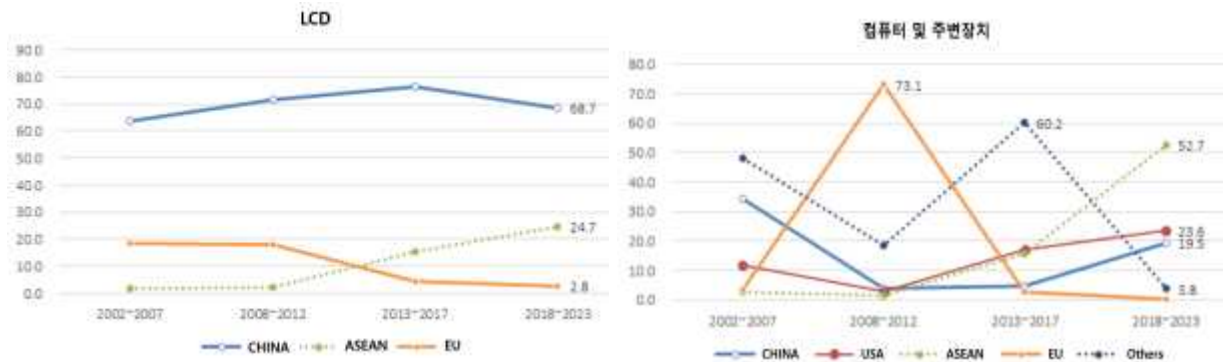
■ [ASEAN]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베트남), 1차 금속 제조업(말레이시아, 베트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인도네시아, 베트남) 분야가 한국의 대ASEAN 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중국을 가공무역 기지로 삼았던 섬유, 의류, 가죽 및 신발 등 노동집약적 업종과 가전 및 AV 기기 부문에서 베트남을 위시한 ASEAN으로의 투자 지역 전환이 일어남(제1차 전환, 2008~12년).
- 2016년 한·중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2018년 이후에는 통신장비 및 컴퓨터 사업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등,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투자 분야에서 ASEAN이 주요한 해외투자 대상 지역으로 부상함(제2차 전환).

그림 6. 업종별 한국의 제조업 해외투자 지역 비중 변화 ASEAN 우위 업종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베트남] 베트남으로의 제조기지 이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섬유,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통신장비(휴대전화), AV 기기, 컴퓨터, 전자부품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음.<sup>10)</sup>

표 8. 한국의 해외투자 중 베트남의 비중

(단위: %)

업종	1980~2023	2002~07	2008~12	2013~17	2018~23
섬유제품	34.2	17.5	26.1	60.8	59.8
의류	26.4	22.9	26.9	43.0	26.3
가죽제품 및 신발	36.1	35.1	28.8	42.7	44.0
AV 기기	8.7	0.9	7.8	41.6	72.3
가전	17.6	8.0	4.2	48.5	9.5
컴퓨터 및 주변기기	3.1	0.1	0.0	13.7	52.3
통신장비	31.6	0.2	8.0	34.8	54.9
전자부품(반도체 제외)	21.5	1.0	6.1	27.4	36.6
제조업	9.2	5.3	6.6	14.4	10.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DB.

- [인도네시아]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 39억 달러) 추진으로 2018~23년 석유화학 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이 대인도네시아 제조업 투자 업종 1위를 차지했고, 2022년 현대자동차 공장 준공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투자 규모가 2위를 차지함.<sup>11)</sup>
- [말레이시아] 약 9천억 원 규모의 SK넥실리스 공장 건설로 2018~23년 1차 금속제조 중에서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동박 관련(동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기록됨.<sup>12)</sup>

10) 2013~23년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중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액은 672억 달러로 동 기간 전체 외국인투자의 20.8%를 차지하여 ASEAN 역내국으로부터의 투자(22.9%)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외에 홍콩 9.4%, 중국 8.2%, 타이완 5.7%, EU 4.6%, 미국 1.7% 순임. CEIC(검색일: 2024. 4. 10.).

11) 이코노미스트(2022. 1. 7.), 「롯데케미칼, 39억 달러 투자해 인니에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건설」; 아시아타임즈(2022. 3. 16.), 「현대차, 아세안 공략한다...인도네시아에 연25만대 생산기지」.

12) 연합뉴스(2023. 11. 5.), 「SKC 말레이시아 동박공장 가동 시작...첫 글로벌 생산거점」.

**글상자 1. 삼성전자의 재중국 모바일 기기 생산공장 이전 사례**

- 2019년부터 스마트폰, PC 등의 중국 내 낮은 시장점유율,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 내 생산 수익성이 악화되자 생산거점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기기 생산 공장을 베트남, 인도 등으로 이전함.
  - o 중국 내 사업은 삼성이 설계한 제품을 협력업체에 위탁 생산하는 합작개발 생산(JDM)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주로 중저가 제품을 만드는 방식임.
- 2021년 삼성이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모바일 기기의 베트남 생산 비중은 60%에 달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주요 공장에서 생산 차질을 겪자 인도,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 글로벌 전역으로 생산 기능을 분산하고 있음.
  - o 베트남 내 생산 비중은 2021년 60%대 → 2022년 50%대 → 2023년 40%대로 하락함.

**표 9. 삼성의 중국 사업장 정리 현황**

시기	내용	이전지역
2018. 4	선전 통신장비·휴대폰 공장 폐쇄	베트남, 인도
2018. 12	톈진 스마트폰 공장 폐쇄	베트남, 인도
2019. 3	냉장고 10만 대 생산 분량 태국 공장 이전	태국
2019. 9	광둥성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 폐쇄	베트남, 인도
2020. 9	쑤저우 PC 공장 생산 종료	베트남
2020. 12	쑤저우 LCD 공장 생산 종료	베트남

자료: 본고 [표 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10. 2023년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 생산계획**

생산공장	생산 비중 (%)	생산공장	생산 비중 (%)
베트남	46	브라질	7
-타이응우옌성		인도네시아	3
-박닌성		한국(구미)	3
인도	21		
중국(JDM)	18	기타	2

주: 1) 모바일 기기는 스마트폰, 피쳐폰, 태블릿 PC 등으로 스마트폰 비중이 약 90%임.

2) 생산 비중 목표는 법인별 목표임.

3) JDM이란 삼성이 설계한 제품을 협력업체에 위탁 생산하는 방식임.

자료: 전자신문(2022. 11. 3.), 「삼성폰, 베트남 생산 40%대로 줄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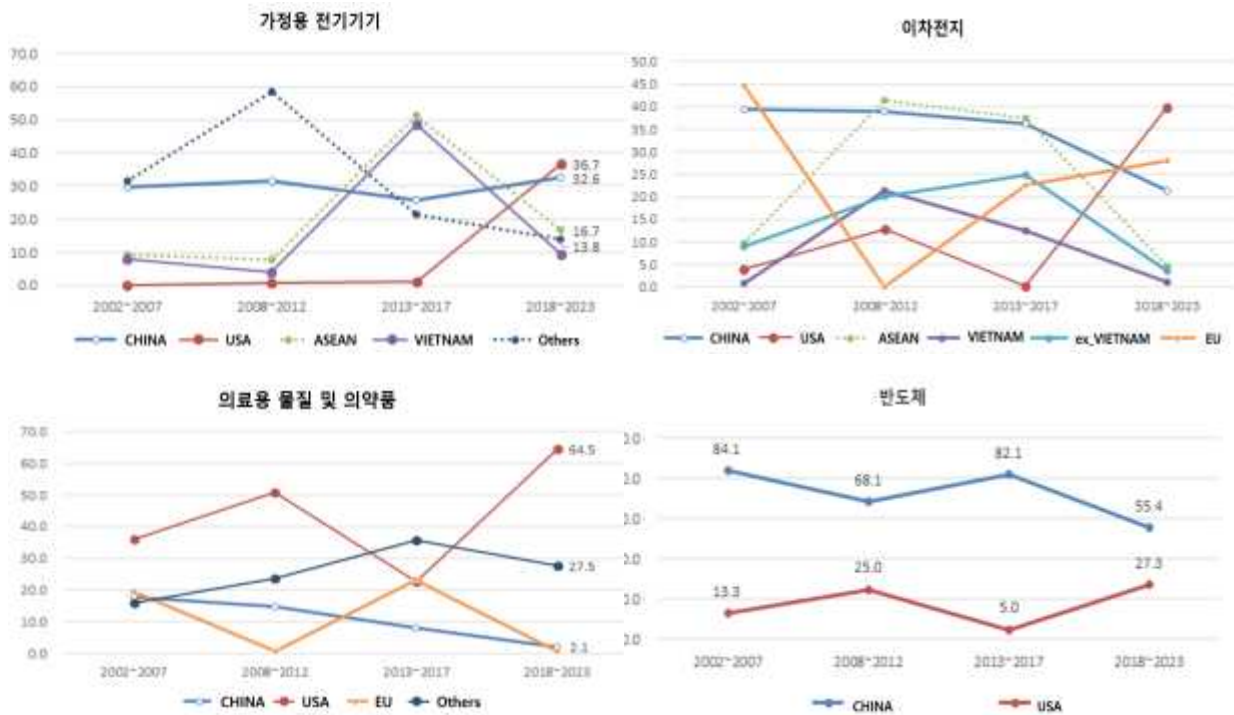
**■ [미국]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신에너지 자동차), 의약품 및 의약물질, 가전 생산기지로서 미국이 부상하고 있음(그림 7 참고).**

- 한국의 해외투자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미·중 갈등의 대상 업종에 집중된 가운데, 이들 업종의 해외투자 대상 지역이 중국과 ASEAN에서 미국과 EU로 전환되고 있음.
- [배터리] 2022년 미국의 「IRA」 시행 이후 국내 배터리 3사(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의 북미 생산공장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sup>13)</sup>
- [반도체] 2022년 미국의 「반도체법」 시행 이후 삼성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대미국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o 삼성전자는 기존 투자 규모의 2배 이상인 440억 달러를 미국에 추가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짐.<sup>14)</sup>
- [자동차]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앨라배마주 74억 달러) 등 전기차 관련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13)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2024. 2. 5.), 「업황부진+실적하락'에도 흔들림없는 K-배터리 북미 투자」.

14) 경향신문(2024. 4. 9.),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까지...미국에 현지 공장, 돈 쏟아붓는 까닭」.

그림 7. 업종별 한국의 제조업 해외투자 지역 비중 변화\_미국 우위 업종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중남미] 중남미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가전 및 전자부품(반도체소자), 자동차 및 부품, 철강, 광업 분야에서 대중남미 투자가 확대됨.

- [자동차]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내 자동차 사업 확대로 자동차 제조업(15억 달러)이 대중남미 제조업 투자에서 1위(2011~23년 총 42억 1,800만 달러 투자)를 차지함.
- [철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브라질이 한국의 철강산업 진출 지역으로 부상하여 2018~23년 총 29억 1,800만 달러 규모의 제철업 투자가 이루어짐.
- [전자부품] LG전자의 브라질 공장 통합으로 중남미 발광다이오드(반도체 소자) 제조업 투자가 증가함.
  - LG전자는 1995년 마나우스 공장(TV, 에어컨)을, 2005년에는 타우바테 공장(휴대전화, 노트북, 모니터)을 설립하고, 2024년 2월 브라질에 냉장고 등 백색가전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함.<sup>15)</sup>
- [자원] 중남미 지역이 원유 및 구리, 철광석, 리튬 등 광물자원 공급기지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분야 투자를 지속 확대함.
  - 광업 분야 대중남미 투자는 2008~12년 27억 8,000만 달러, 2013~17년 36억 4,000만 달러, 2018~23년 4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함.
  -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염호에 연간 2만 5,000톤 생산 규모의 리튬 공장을 착공하였고, LG에너지솔루션은 같은 해 칠레 리튬 업체인 SQM과 수산화·탄산리튬 56만 5,000톤의 공급계약을 체결함.<sup>16)</sup>

15) 타우바테 공장의 노트북과 모니터 생산라인을 마나우스로 이전함. 비즈니스포스트(2021. 5. 31.), 「LG전자 브라질공장을 한 곳으로 통합, 새 생산라인에 700억 투입」; 외교부(2024. 3. 6.), 「LG전자 브라질 가전공장 투자 계획 발표 동향」.



표 11. 한국의 제조업 해외투자 지역별 상위 업종(중분류, 2018~23)

(단위: 백만 달러)

순위	ASEAN		중남미		북미		중국	
	업종	금액	업종	금액	업종	금액	업종	금액
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972 (베트남, 3,50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95	전기장비 제조업	10,36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127
2	1차 금속 제조업	2,388	1차 금속 제조업	1,46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891	전기장비 제조업	4,004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7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6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97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3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24. 4. 5.) 활용하여 저자 작성.

### 3. 평가 및 시사점

■ [대중국 투자 전망] 현재 재중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 중국 경제성장 둔화 및 외국인투자 정책에 대한 불투명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장기 침체기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음.

- 2013년 이후 중국이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배터리, LCD 등 첨단부품 중간재 병목(bottle neck) 분야와 중국 자동차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
- 그러나 한·중 관계 악화(사드 사태)와 중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인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미·중 마찰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 리스크가 커지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내수시장이 위축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됨.
- 기존 전통산업에서 대중국 투자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롭게 성장하는 신산업(첨단) 분야에서는 한·중 간 협력보다는 경쟁구조가 정착되고 있어 향후 대중국 투자가 디지털 전환 및 그린 전환 관련 투자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투자 감소에 따른 한·중 교역 위축] 대중국 투자 둔화가 중국 내수시장 개척, 대중국 중간재 수출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대중국 수출 감소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현지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의 일부를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중국 내 가공 및 제조를 거쳐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매입·매출 패턴을 유지함으로써 한·중 무역 확대에 기여해 왔음.

16) 조선일보(2023. 6. 30.), 「아르헨 염호에 1조 투자... 포스코 리튬공장 착공식」; (주)LG 홈페이지(2023. 7. 7.), 「LG에너지솔루션, 칠레 SQM사와 세계 최대 규모 리튬 구매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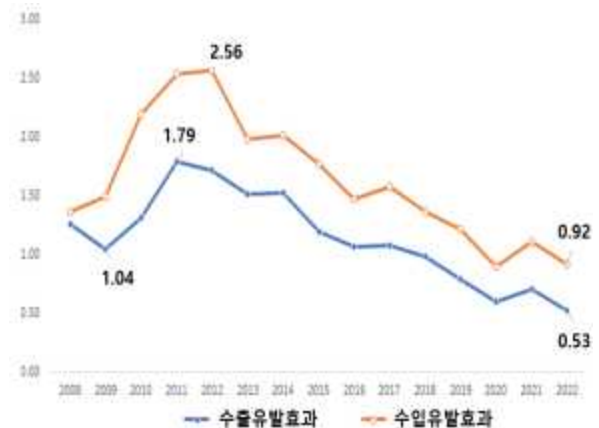
-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중국 한국기업의 투자 단위당 수출 유발효과는 0.53, 수입 유발효과는 0.92, 무역 창출효과는 1.45,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0.39임.
- 2022년 조사대상 기업(1,320개)의 투자 잔액은 660억 달러, 조사대상 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347억 달러(2022년 대중국 수출의 22.3% 상당),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606억 달러(2022년 대중국 수입의 39.2% 상당)로, 총 954억 달러의 한·중 무역을 창출(2022년 한·중 교역액 3,104억 달러의 37.0%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sup>17)</sup>
-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과 매출 패턴이 현지 조달과 현지 판매 중심 구조로 전환되면서 대중국 투자에 따른 수출과 수입 유발효과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재중 한국기업의 투자 단위당 수출 유발효과는 2011년 1.79를 정점으로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수입 유발효과 역시 2012년 2.56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함.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2007년까지는 무역흑자를 유발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구조로 전환됨.

그림 8. 재중 한국기업의 매입·매출 구조와 수출입 유발효과 변화

① 재중기업의 매입과 매출 중 한국과의 거래 비중  
(단위: %)



② 수출입 유발효과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투자와 수출의 연계전략 수립]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대중국 수출 의존 축소, 대중국 중간재 수입 의존 축소, 대중국 투자 의존 축소)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투자 지역 다변화를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해야 함.
- 글로벌 외국인투자 유치액(2022년 말 현재 스톡 기준)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한국의 해외투자 국가별 비중(2023년 말 누계 기준)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해외투자가 미국, 중국, ASEAN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보임.
- 한국기업의 새로운 투자 지역으로 부상한 ASEAN, 특히 베트남에 대한 상대적인 편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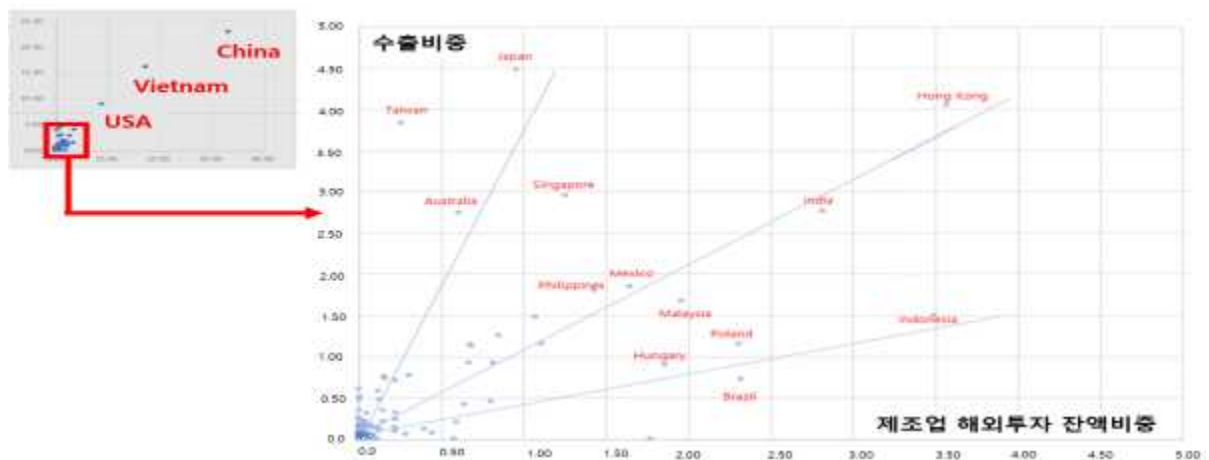
17) 2022년 말 기준 대중국 투자 잔액(918억 달러)과 수출입 유발효과를 감안할 경우 2022년 대중국 투자가 유발한 한·중 교역액은 1,325억 달러(2022년 대중국 수출입의 43% 상당), 대중국 수출 유발액은 482억 달러, 대중국 수입 유발액은 8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글로벌 FDI 내 각국 비중 대비 한국 해외투자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1.17배, 중국 1.35배, ASEAN 1.67배(베트남 9.53배, 미얀마 7.64배, 캄보디아 6.41배, 인도네시아 3.92배, 필리핀 2.4배 등)임.
- 글로벌 해외투자 분포를 감안할 때,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등),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베트남 이외의 동남아(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지로의 해외투자 확대가 필요함.
- 상기 지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해당 지역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외투자가 수출 확대의 중요한 루트 중 하나라는 점에서 동 지역에 대한 투자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음.
- 한국의 해외투자 잔액 대비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유럽(폴란드, 헝가리 등), 브라질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지역이 될 수 있음.

### 그림 9. 해외투자와 수출 다변화

① 수출 비중과 해외투자(스톡) 비중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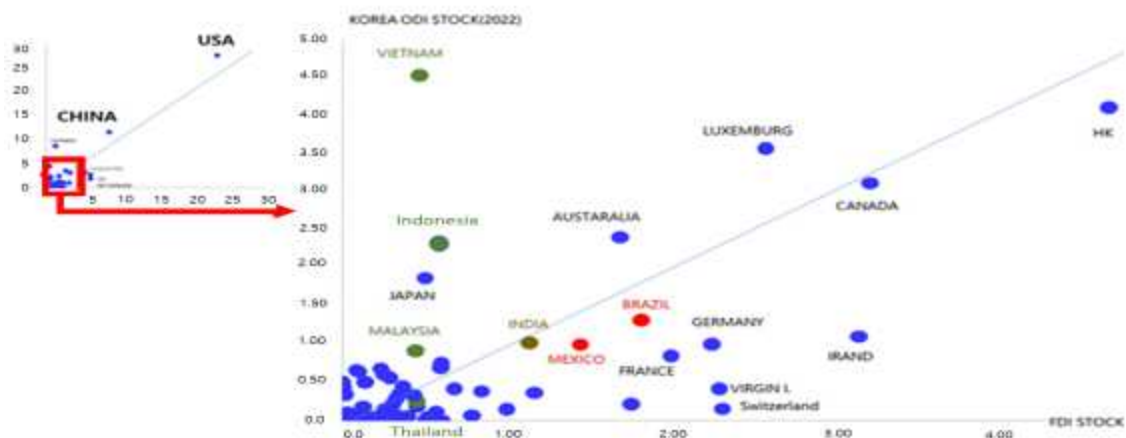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KITA 및 한국수출입은행 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② 한국 해외투자의 국가별 비중과 글로벌 FDI 내 각국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및 UNCTAD 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대중 한국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외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대중국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제3국 이전 지원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중국은 여전히 한국 제조기업의 주요 투자 대상 지역으로, 2023년 말 기준 한국 제조업 해외투자 누계의 31.6%(769억 달러)가 중국에 포진해 있음.
  - 한국의 업종별 해외투자액 중 중국 비중(누계)은 전자통신 산업이 49.9%(투자 잔액 318억 달러), 자동차 및 트레일러 30.4%(107억 달러), 고무 및 플라스틱 33.3%(30억 달러), 화학 24.3%(51억 달러), 섬유 및 의류 제조업의 20%(27억 달러) 내외임.
- 이러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 내수와 수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자동차·화학 등 중국 기업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업종의 중국 내 사업 구조조정과 탈중국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소재와 부품 기업의 탈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첨단 분야 및 공급망 핵심 업종에서 탈중국기업의 한국으로의 회귀(U-turn)뿐만 아니라 해외 공급망 다원화 차원에서 제3국으로의 이전(P-turn)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국내 유턴 기업 수는 107개이고, 이 중 국내에 정착해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은 27%임.<sup>18)</sup> KI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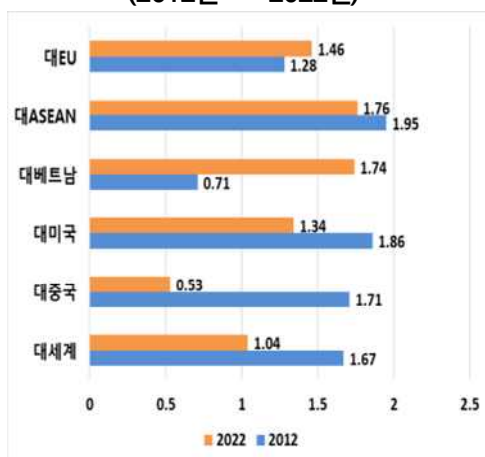
18)문화일보(2023. 9. 20.). 「국내복귀 '리쇼어링' 기업 27.1%만 영업중...성과 '미진」.

## 【부록】 해외투자의 수출입 유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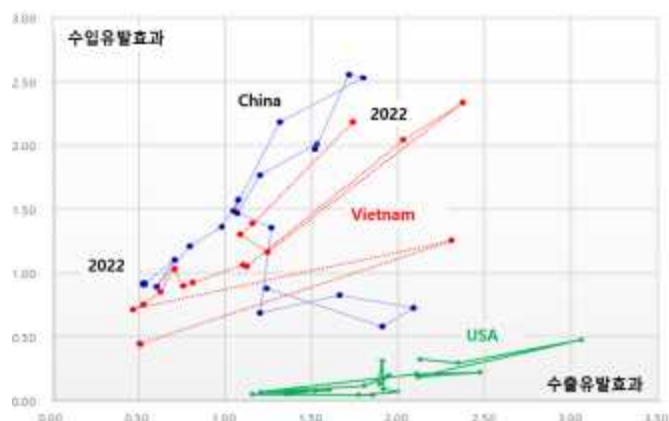
-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진출 초기의 경우 수출 유발효과가 컸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대적으로 수출 유발효과와 감소폭이 수입 유발효과 감소폭보다 커지면서 무역수지 개선효과도 약화됨.
  - 해외법인에 의한 수출 유발효과는 2012년 1.67에서 2022년 1.04로 하락했고, 동 기간 수입 유발효과도 1.06에서 0.53으로 낮아져, 무역수지 개선효과(0.61 → 0.53)와 무역 창출효과(2.73 → 1.59)도 하락함.
  - 해외 진출기업의 매입 중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2005년을 정점(52.7%)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하락 → 상승 → 하락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출 중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대체로 15~20%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함.
    -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지 조달이 강화되면서 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하락하였고, 베트남에 진출한 현지법인의 경우에만 2017년 이후 한국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상승함.
    - 중국의 인건비 상승, 미·중 마찰 확대로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하여 우리 기업의 가공무역기지 역할을 담당할 결과로 볼 수 있음(노동집약적 가공무역 업종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의 결과).
- 해외투자의 수출과 수입 유발효과를 기준으로 해외투자는 크게 수출 유발형(미국형, 유럽형), 수출과 수입 동시 유발형(중국형, 베트남형), 무역 비유발형(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지역별 해외투자 수출입 유발효과와의 차이는 한국과의 지리적 거리, 진출 업종의 차이에 기인하며, 상대적으로 제조업 분야 투자가 많은 지역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조달과 함께 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역수입(buy back)하는 특징을 보임(제조업 중심 투자 지역인 중국, 베트남, 미국 투자의 사례는 그림 참고).

부록 그림. 해외 진출기업의 수출입 유발효과 변화

① 수출 유발효과 변화  
(2012년 → 2022년)



② 수출유발계수와 수입유발계수 관계 변화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